

# 첨단위생설비 갖춘 신공장 준공, 본격 가동

(주)하림(대표 김홍국)은 지난 6월 16일, 최첨단 위생설비를 갖춘 동양 최대 규모에 신 가공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화재로 소실된 전북 익산의 옛 가공공장 부지에 준공된 신 가공공장은 약 54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11,000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1일 처리능력은 30만수이다.

이번 하림의 신 가공공장은 신선육 및 가공식품의 신선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으며, 농가별로 집계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육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는 등 그 동안 부족했던 점들을 대대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험 가동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화재와 조류독감 등으로 최대의 위기를 겪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다시 동양 최대의 최첨단 공장을 건립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애써 준 지역민과 지자체, 기관, 단체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최고 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라 밝히면서 최선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 16일 거행된 준공식에는 김홍국 회장 등 임직원을 비롯해 허상만 농림부 장관, 강현욱 전북

도지사, 본회 최준구 회장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하림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주)하림은 이번 신 공장 본격 가동으로 시장 안정은 물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육농가와 지역경제의 희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